

주간 변화와 소통

제11-6호

2013년 3월 15일(금)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KT노동조합, 한국노총 가입 추진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3년 8개월만에 상급단체행
3월 20일~22일 전국대의원대회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
KT그룹노조협의회 13개 노동조합도, 한 목소리로 결의

노동조합은 3월 11일(월) 2009년 7월 민주노총 탈퇴 후, 3년 8개월만에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가입을 통해 ▲KT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좌파세력으로 부터 KT노동조합·KT 사수 및 조합원 고용안정 강화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에 맞서 대정부 교섭력 확충 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상급단체 가입은 규약에 따라 20일(수)~22일(금)로 예정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인 12일(화), KT그룹노조협의회(의장: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는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전 단사 노동조합 한국노총 가입추진을 선언 했다. 한국노총 가입 추진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하나, 상급단체 가입 통해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 확대!

둘, KT노동조합 · KT 사수 및

조합원 고용안정 강화!

셋,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에 맞서

대정부 교섭력 확충!



KT노동조합의 한국노총 가입추진에 대해 통신시장과 노동계, 언론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노총 탈퇴 이후 독자적인 노동운동과 자주성을 지키는데 있어 단사 노동조합이 갖는 사회·정치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노동운동 성향이 비슷하고 정치적 입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민주노총 탈퇴 후, 민주노총과 결탁한 일부 조직이 KT노동조합의 진정성을 호도하는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악의적으로 확대재생산된 보도는 KT 조합원과 노동조합, 현장의 피로감을 증폭시켜왔다.

정윤모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 후 KT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HOST운동 및 UC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이제는 성격이 유사한 더 큰 그릇, 더 큰 연대를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전파에 앞장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좌파세력이 KT를 주인 없는 회사로 인식하고 시시각각 안팎으로 흔드는 만큼, 노동조합이 나서 KT를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용에 위협요인이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규제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제동이 심화되고 있어 통신 사업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제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국내 ICT산업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고 창출할 수 있도록 대정부 교섭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윤모 위원장 "한국노총 가입은 5만 KT가족과 노동조합, 일터 지키는 기폭제 될 것"

또한, KT그룹 13개 전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한다. 3월 12일 그룹노조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미 한노총에 가입한 KT텔레캅과 KT링커스를 포함한 13개 KT그

룹 노동조합 모두 함께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정윤모 의장은 "한국노총 가입은 5만 KT가족과 노동조합, 일터를 지키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각 단사별로 3월 29일(금)까지 전국대의원대회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상급단체 가입을 의결하자"고 독려했다.

KT그룹노조협의회는 KT노동조합을 중심으로 KT텔레캅, KT링커스, KTDS, KT렌탈, KT하이텔, KTN, KT파워텔, KF&S, KTIS, KTCS, KT에스테이트, Ktsat 등 KT그룹 13개 단사 노동조합 협의체다.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조합원 최우선 활동, 사회적 책임 실천, 신노사문화 기틀 마련

한편, KT노동조합은 2009년 민주노총 탈퇴를 시작으로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역할로 대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출범한 11대 집행부는 '변화하고 소통하는 강한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기존 노동조합과 차별화를 선언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무관심"이라며, "탁상공론이나 대안 없는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 위원장은 "대기업 노사라면, 이제는 고객인 국민까지 보듬을 수 있는 통 큰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뜻이 맞는 타 기업 노사와 UCC로 연대하고, 통신 3사 노조협의회를 발족시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을 피력했다.

왜 한국노총인가 - Q&A

Q. 노동조합은 왜 지금, 상급단체에 가입하려고 하나요?

A. 상급단체 가입요구는 지난 2009년 민주노총 탈퇴 이후, 전국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세력과 결탁한 일부 세력의 KT노조 흔들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KT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외부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렸듯이 그 동안 추진해왔던 사회공헌활동 등을 강화하고, 대정부 교섭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급단체 가입은 지난해에도 전국대의원대회 건의사항으로 제기되었고, 노동조합은 1년 동안 심사숙고 후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Q. 민주노총이 아닌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 가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널리 알려졌듯이, 2009년 민주노총 탈퇴 주요 이유가 KT노조, 조합원과의 노선차이였습니다. 통신환경이 급변하듯이 노동운동도 조합원 실리를 최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조합은 현재 한국노총이 국내노총 중 KT노동조합, 조합원이 지향하는 바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KT노동조합과 연대하며 활발히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UCC 회원사 대부분이 한노총 소속이며, 통신3사 노동조합협의회 노조들 역시 한노총 소속이어서, 향후 통신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도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Q. 한국노총 가입 후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A. 민주노총 탈퇴 후 KT노동조합이 추진했던 HOST운동과 사회공헌활동은 연대를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한국노총 내 KT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KT 노동조합 규모에 맞는 역할에 대한 지속적 고민을 통해 전체 통신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Q.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가입 후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A. 아무래도 대외적인 영향력이 배가되기 때문에 교섭력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따를 것입니다. 또 KT노조의 위상강화로 우리의 일터인 KT에 대한 입장 대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